

‘호남 정신’ 초석 다진 거인들의 귀환

한국학호남진흥원, ‘하서전집’·‘눌재집’·‘석천시집’ 완역 출간
26일 서구청서 ‘눌재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학술대회

‘호남 정신의 초석을 다진 거인들이 귀환하다’.
하서(河西) 김인후, 눌재(訥齋) 박상(, 석천(石川) 임억령은 사상과 학문 분야에 있어 호남 정신의 원류를 형성한 유학자이다.
최근 하서, 눌재, 석천의 주요 저작을 집대성한 서적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문인인 세 거인들의 저작을 집대성한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을 완역 출간했다.

이번 총서 발간은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문 원전의 장벽을 낮추고, 세 학자의 사상과 문학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사회적 비판 기능 등 다채로운 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총서 발간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단순한 문헌 복원에 머물지 않고 정밀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을 첨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번역서가 연구 기초 자료로써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후속 세대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문 연구자를 비롯해 한국학

과 호남의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에 발간된 ‘하서전집’(河西全集)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자 호남 유학의 태산복두(泰山北斗)로 꼽히는 하서의 시문, 상소, 서간 등이 망라돼 있다. 학문적 성취는 물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호남 정신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눌재 박상은 강력한 성품으로 불의한 사회를 비판하고 백성을 위했던 개혁적 관료다. ‘눌재집’(訥齋集)은 당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시문이 주를 이룬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는 물론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문집이다.

석천 임억령은 식영정(息影亭)을 중심으로 호남 가사문학의 융성에 크게 기여한 문인이다. 이번에 출간된 ‘석천시집’(石川詩集)은 그의 시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 손색이 없다. 자연에 대한 애착, 인간사를 깊이 사유하는 작품은 조선 시문학사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눌재집’ 국역본 출간에 맞춰 오는 26일(오후 1시 30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을 완역 출간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눌재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자연에 예찬하는 시에서부터 애민 정신을 견지한 시 등 다채로운 작품을 모티브로 2부에 걸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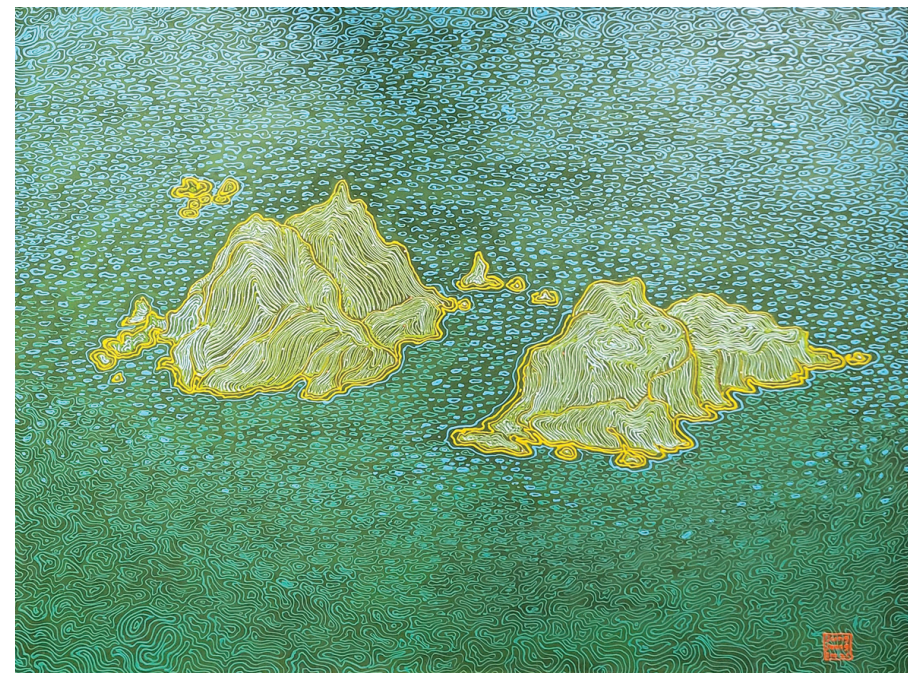
나상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눌재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박명희 전남대), ‘눌재 박상의 총절에 대한 기억과 상징화’(정하정 계명대), ‘눌재집’의 현대적 활용 방안(김광명 성공관대)이 발표된다.

2부 종합토론은 김신중(전남대)을 좌장으로 강동석(한국학호남진흥원), 강성규(고려대), 정인서(광주 서구문화원)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홍영기 원장은 “이번 국역 출간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현대적 언어로 되살림으로써 호남의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서, 눌재, 석천 세 거인의 사상과 문학이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눌재 박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16세기 호남 시단의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원전 자료를 토대로 연구 및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을 묵상하는 섬, 독도’

정정임 초대전, 7월 2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동해의 가장 끝에 자리하는 섬이라는 영토적 개념을 넘어 한민족의 주권, 자긍심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독도는 문학작품,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창작돼왔다. 앞으로도 독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정임 작가가 독도를 모티브로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사랑을 묵상하는 섬, 독도’.

작가는 독도를 감성을 지닌 생명체로 의인화한다. 푸른 바다에 다소곳이 앉아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가만히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독도가 들려주는 어떤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화폭 속 독도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다. 어느 것에도 얽매어 있지 않고, 무언가

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서 섬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전달할 뿐이다. 그 전달마저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다.

정정임 작가는 “독도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중요한 섬이다. 그러나 잠시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독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 중요한 것을 가만가만 들려주는 것 같다”며 “동해바다 멀리 아득히 떠있는 섬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평화와 사랑과 같은 묵직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작가는 조선대 미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생명의 순환과 생성정 등 개인전, ‘평창+문화를 더하다’ 아트페스티벌 등 그룹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광주미술 최우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필암서원 촬영로.

<광주일보 자료>

시와 음악, 감정을 깨우는 무대

최형지 피아노 독주회, 7월 5일 ACC 예술극장

시와 음악이 감춰졌던 감정을 살포시 건드리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형지가 선사하는 이색적인 콘서트가 7월 5일 오후 6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다.

‘시와 음악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문학과 음악의 만남을 통해 감정을 마주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상처와 회복, 고독과 희망을 품은 시와 클래식 음악이 만나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어루만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에 김현승의 시 ‘눈물’을 연결시켜 순수하고 투명한 감정의 흐름을 그린다. 이어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과 윤동주의 시 ‘자화상’이 함께한다. 인간 내면의 고독과 자기성찰을 주제로 한 이 조합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깊은 공명을 일으킨다.

2부에서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Op.90’이 윤동주의 ‘새로운 길’과 함께 연주된다. 혼자 걷는 길 외에서의 외로움과 결심에 음악의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이어지는 코너 치의 현대곡 ‘Weaving’은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를 바탕으로 부드럽고 환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피아니스트 최형지

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감정 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형지 피아니스트는 “우리는 모두 감정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꺼내놓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번 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객과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번 공연은 단순한 피아노 독주회가 아니다. 무대에는 곡에 어울리는 시가 함께 소개되고, 시의 전문은 화면에 띄워 관객이 음악과 감정을 함께 따라가도록 돕는다. 비언어적인 음악을 언어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청중의 몰입과 감정 이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공연 중에는 관객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감정 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찬욱 감독, 서울국제도서전 참석

“한강 ‘소년이 온다’ 영화 제작 희망”

예술가들이 작품을 꾸준히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재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야기거리는 소진되기 일쑤다. 서양의 시인들은 재능이 말라갈 때 ‘뮤즈’를 애타게 찾았고, 동양의 시인들도 한 번 찾아왔다 떠나가고야 마는 시의 귀신, 시귀(詩鬼)를 원망하며 그다 다시 찾아오길 울면서 갈구했다.

적어도 박찬욱 감독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영화의 원천이 되는 수많은 책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커다란 히트작 ‘공동경비구역 JSA’(2000)를 비롯해 ‘올드 보이’(2003), ‘박쥐’(2009), ‘아가씨’(2016), 그리고 올 추석 개봉 예정인 ‘어쩔 수가 없다’(2025)까지 상당수 작품이 원작 소설이나 만화를 각색한 영화다.

그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해 아직도 만들고 싶은 문학 작품이 많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첩터만 읽어봤을 때도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걸작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특히 김훈의 ‘칼의 노래’를 그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도가니대책위 20년 활동 돌아본다

실로암사람들 ‘토크콘서트’…26일 남구 피크뮤직홀

장애인 인권의 변화를 이끈 ‘도가니대책위’의 20년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 토크콘서트 열린다.

(사)실로암사람들은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피크뮤직홀에서 ‘도가니대책위 활동 20년, 토크 &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결성된 대책위의 활동을 조명하고, 시간의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무대에는 소설 ‘도가니’를 통해 사건을 널리 알린 공지영 작가와 가수 박강수가 출연해, 문학과 음악을 통해 그날의 기억과 오늘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가수 박강수는 지난 2012년 인화학교 피해 학생들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앨범을 발매한 바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실로암 사람들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지영

박강수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는 “도가니대책위는 지난 20년간 과거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립특수학교 설립과 성폭력특별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이번 행사가 그 여정에 함께해온 시민들과 기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건물 리모델링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